

大巡眞理會의 四綱領에 관한 研究

- 安心·安身 -

曹泰龍*

目次

I. 序論

II. 安心·安身の 背景

1. 上帝의 降世와 大巡眞理의 確立

1) 先天宗教의 한계

2) 今不聞古不聞의 大巡眞理

2. 趙鼎山 道主의 宗統繼承

3. 无極道의 創道와

宗旨·信條·目的의 設定

III. 安心·安身の 意義

1. 安心·安身の 定義

2. 安心·安身の 內容

1) 天下皆病의 현실적 상황

2) 大病之藥과 修行의 訓典

3. 安心·安身の 실천방안

1) 安心立命의 생활태도

2) 修心煉性과 洗氣煉質

IV. 結論

I. 序論

어떤 종교의 교리나 의례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교 자체의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한 종교를 그 종교가 아닌 다른 가치관의 척도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 많은 오해와 그로 인한 갈등이 있어왔음은 인간역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례이다. 조선초기 정도전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불교를 배척한 것이나 근대에 이르러 서구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기타 지역의 종교에 대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의 틀 속에서 평가를 했던 것 등이 그것이다.

다른 종교나 다른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감정을 파악할

* 대순사상학술원장

때, ‘구조화된 감정이입(structured empathy)’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는 종교학자 니니안 스마트의 말¹⁾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종교의 교리는 그 종교의 세계 속에서 이해되고 신앙되어야 할 것이다.

대순진리는 기존의 어떤 가르침이나 종교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진리체계이다. 그것은 삼계를 주재하는 조화주신이신 상제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시어 새롭게 열으신 천지대도(天地大道)이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의 신조(信條) 중 사강령(四綱領)에 속해 있는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은 바로 그러한 대순진리라는 진리체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순진리회의 교리체계 중에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라는 종지(宗旨)와 무자기, 정신개벽, 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이라는 목적(目的)을 연결시키는 사강령과 삼요체의 신조(信條) 속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안심, 안신의 의미는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II. 安心·安身の 背景

1. 上帝의 降世와 大巡眞理의 確立

1) 先天宗教의 한계

천지가 열리고 이 땅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수없이 많은 민족과 문화가 명멸하면서 발전, 계승되어 오늘날의 현대문명을 이루게 되었다. 어떤 민족 혹은 문화는 그 당대에는 넓은 지역에 유포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다가도 백년을 못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기도 하며, 어떤 민족과 문화는 발생초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그 세력이 보잘 것 없어 보였지만 수백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지역에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금(現今)의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들에 대하여 그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의 대부분 어느 종교나 사상을 창시한 교조와 만나게 된다. 바로 이들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현(聖賢)들로서, 대순사상에서는 신성 불 보살로 지칭되고 있기도 하다.

1) 니니안 스마트(강돈구 譯), 『현대종교학』 (서울 : 청년사, 1993), p. 24

현대의 서구문명도 그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모세같은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의 사상을 통칭하는 헤브라이즘(Hebraism)과 그리이스의 현인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부터 태동된 헬레니즘(Hellenism)의 결합이란 사실과 만나게 된다. 고대 인도에서 현인들이 간직하였던 사서인 베다(Veda)와 인도북부 삼림지대에서 살던 예언자와 현인들에 의해 창조된 우파니샤드는 현대의 인도를 지배하는 정신문명의 모체가 되었다²⁾. 또한 같은 인도 출신의 석가와 중국의 공자가 인류에게 전한 가르침이 동양문명의 근간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밖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 자이나교의 교조인 마하비라 등의 현인들도 수 백년 혹은 수 천년의 시공을 넘어서서 현대인류와 정신문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현(聖賢)들이 세상에 와서 숭고한 가르침을 펼친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구별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인류의 문명화이다.

원시시대의 인류가 진화론적인 발전을 통하여 문명을 형성하였다는 일반론적인 견해와는 별도로 실제 동서양의 고대사를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료(史料)들은 몇몇의 성현(聖賢)들이 초인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당시 미개한 인간들에게 문명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신농씨는 농사와 의학을 세상에 펼쳤으며³⁾, 요(堯)는 일월성신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백성들에게 역법을 가르쳐 주었다⁴⁾. 황제 헌원씨는 백성들에게 오곡을 심는 법을 가르치는⁵⁾ 등 고대 인류에게 최초의 문명생활과 인의예지신, 삼강오륜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예절을 가르친 사람들은 성현들이었다.

둘째, 유토피아의 건설이다.

2) H. J. 슈퇴릭히(林錫珍 譯), 『世界哲學史(上)』(왜관 : 분도출판사, 1984), pp. 36 ~ 44 참조

3) 『전경』, 예시, 22

4) 『전경』, 교운, 1, 30에 “상제께서 요(堯)의 역상일월성진경수인시(曆像日月星辰 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깎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느니라」고 하셨도다”의 기록이 있다.

5) 司馬遷, 『史記』, 「五帝本紀」에 ‘軒轅乃修德振兵 治五氣 藝五種’이라는 기록이 있다.

성현들이 이 세상에 나와 가르침을 펼친 목적이 단순하게 무지한 인류에게 지혜를 열어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 문명화된 사회를 여는 수준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공자는 사람들에게 인(仁)과 덕(德)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천하가 화평하게 한 집안이 되어 살아가는 대동세계(大同世界)⁶⁾라는 이상향(理想鄉)을 꿈꾸었다. 불교도 자기 마음을 밝혀 본래의 성품을 그대로 보아 부처가 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에만 안주하지 않았다. 모든 중생이 고해(苦海)에서 벗어나 성불(成佛)함으로써 다같이 더불어 영원토록 즐겁게 사는 극락세상(極樂世上)을 염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유토피아에 대한 염원은 기독교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10계명을 지키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모두 하느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기독교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열망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현들의 목적이 실제로 실현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현들이 이 땅에 가르침을 펼친 두 가지의 목적 중 인류를 문명화시키고자 한 첫째 목적은 그 일부만 실현되었으며, 두 번째 목적인 유토피아의 건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이 세상은 성현들의 뜻과는 반대로 도덕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더욱 혼탁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석가, 공자, 예수를 비롯한 성현(聖賢)들은 스스로를 인격적·도덕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많은 가르침을 세상에 펼쳤다. 그러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 정진·수도하여 인격적·도덕적으로 완성되고 지혜가 밝아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인(賢人)으로서 존경을 받아왔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되어 대중들을 정신적으로 계도(啓導)하기도 하고, 정치지도자가 되어 국민들에게 밝은 정치문화를 열어주기도 하였다. 이들은 인류역사에서

6) 대동세계라는 표현은 「禮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禮記」, 「禮運」에 “대도가 행해지던 시대에는 천하를 자기의 사유물로 여기지 않아 자기의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어질고 유능한 자를 뽑아 전수했다. … … 그러므로 사람마다 대문을 잠그지 않고도 편히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세상을 公道를 천하가 함께 한다 하여 大同의 세상이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미개한 인간들에게 정신적·물질적 광명(光明)의 길을 열어준 선각자(先覺者)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밝혀 백성을 교화하고 세계를 문명화하려는 성현들의 순수한 목적이 오염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도 처음에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배워 마음을 닦고 수양을 함으로써 지혜를 얻은 현인들이 국가의 중용을 받아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평정하고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 순(舜)은 그 덕스러움으로 인하여 요(堯)임금의 선택을 받아 천자(天子)가 되었으며, 이윤(伊尹)은 성탕(成湯)을 도와 곽(桀)을 치고 천하를 안정시켰다. 은나라 말기 지략과 덕망으로써 문왕과 무왕을 보필하여 폭군 주왕(紂王)의 화정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낸 강태공의 경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예(例)이다.

그런데 어진 인품과 밝은 지혜를 가진 현인(賢人)이 국가에 중용되어 재상(宰相)이나 대원수, 심지어 제왕까지 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순한 사심(邪心)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아! 저렇게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면 크게 출세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성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 출세를 해야겠다”하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다.

결국 인륜을 바로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밝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크게 문명화시키려는 성인들의 가르침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입신양명을 위한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교(儒敎)였다. 유교문화권의 나라에서는 사서삼경을 공부하여 인의예지신을 밝히고 삼강오륜을 바로 세움으로써 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실천하는 것보다 경서(經書)의 글만을 암기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데에만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세상을 문명화시키고자 한 성현들의 가르침이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현실적 상황에 대해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神人)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도 인류역사 초기에는 세상을 문명화시키려는 성인들의 첫 번째 목적이 어느 정도는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정신적 지도자인 성현들이 직접 정치권력까지 지니었기에 가능하였다.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가 그러하였고, 요·순·우왕 역시 성인이면서 제왕의 자리까지 겸하고 있었다. 그같은 예는 우리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檀君王儉)의 경우에서 또한 찾아 볼 수 있다. 원래 단군(檀君)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종교지도자를 뜻한다. 반면에 왕검(王儉)은 군장 즉 정치지도자를 의미한다⁸⁾. 결국 단군왕검이란 한민족 시조의 이름은 종교지도자인 성현(聖賢)이 직접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초기에는 성현들이 직접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기에 세상을 크게 문명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성현이 아닌 사람들이 통치권을 지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도 일부 통치자들은 지혜로운 성현들을 기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대다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했다. 상제께서는 이에 대해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종교 이래로 성과 응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⁹⁾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였다.

공자는 능히 세상을 태평스럽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도락을 갖췄으나 통치권을 얻지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하였으며, 맹자 역시 통치권이 없었기에 자기의 이상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다. 단지 철환천하(轍環天下)하며 여러 군왕들에게 인의(仁義)의 도덕정치만을 유세했을 뿐¹⁰⁾이다. 예수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이다. 예수는 성인으로써 통치권을 겸비하여 세상을 크게 문명화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당시 통치권과의 갈등으로 순교까지 했기 때문이다.

7) 「전경」, 교운, 1, 17

8) 尹乃鉉 등, 「새로운 한국사」(서울 : 三光出版社, 1989), p. 78 참조

9) 「전경」, 교법, 3, 26

10) 이같은 내용으로 「전경」, 행록, 5, 38의 병세문에 “孟子善說齊梁之君(맹자는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들에게 인의의 정치만을 잘 유세했을 뿐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렇게 신성 불 보살들, 즉 성현들이 세상에 가르침을 펼친 두 가지의 목적 중 인류를 문명화시키고자 한 첫째 목적은 일부는 성공했다 할 수 있지만 일부는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인 유토피아의 건설은 어떠한가? 그 답은 바로 '조금도 실현되지 않았다'이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 진멸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석가모니가 영취산록(靈鷲山麓)에서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설법하고, 공자가 곡부 행단의 은행나무 그늘 아래에서 인(仁)에 대해 역설하였지만 B.C. 5 세기의 사람보다 A.D.3세기의 사람들이 더 어질지 못했고 자비스럽지도 못하였다. 예수가 감람산 아래에서 믿음·소망·사랑에 대해 가르쳤지만 그때의 사람들보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원수를 더욱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 증오하는 패륜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극락세상과 대동세계를 건설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지상 천국의 세계를 꿈꾸며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펼쳤던 성현들의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세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에 비례하여 인류도덕이 무너지고 패악과 불의가 더 횡행하게 된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선천세상에 대한 성현들의 진단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제께서 남기신 병세문(病勢文)에 “서유대성인(西有大聖人)일서학(日西學) 동유대성인(東有大聖人)일동학(日東學) 都是教民化民 : 서쪽에 큰 성인이 있으니 그의 가르침을 서학이라고 하고, 동쪽에 큰 성인이 있으니 그의 가르침을 동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모두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다)”¹¹⁾이란 표현이 나온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은 ‘교민화민(教民化民)’이라는 전경 구절처럼 성현들의 가르침은 그 대상이 모두 ‘인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완성되지 못한 원인을 ‘인간’에게 두고 있다는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원죄(原罪) 때문에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

11) 「전경」, 행록, 5, 38

독교의 교리이다. 마음이 곧 부처인데(卽心是佛) 내가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혹하여 중생(衆生)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만 깨치면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모두 ‘나(인간)’ 때문이며, 인간들이 고해(苦海)에서 몸부림치며 해탈과 열반의 길에 들지 못하는 것도 역시 내(인간)가 스스로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선천세계에 대한 성현들의 진단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인간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닦아라’, ‘스스로를 밝혀 자기의 본래성품을 찾아라’, ‘삼강오륜을 지켜라’, ‘스스로를 삼가 사됨을 제거하라’ 등의 가르침이 모두 그러하다.

만약 선천세상이 불완전하고 올바로 도덕이 행해지지 않으며 결국 세상 모두가 진멸지경에 처하게 된 원인이 ‘인간’에 있다는 성현들의 진단이 옳았다면, 성현들의 가르침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며 세상은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2) 今不聞古不聞의 大巡眞理

유구한 인간역사를 고찰해 볼 때, 그것은 결코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는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역사 초기에는 신성(神聖)이 입극하여 성(聖)과 웅(雄)을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관장함으로써 요순시대와 같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성(聖)이 아닌 웅패(雄霸)를 지닌 자가 강권으로 제왕이 됨으로써 덕치가 아닌 법치나 패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지배원리와 인간의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성(聖)보다는 웅(雄)으로, 덕(德)보다는 법(法)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사고는 대표적인 도가경전인 『도덕경』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대도(大道)가 행해지지 않은 연후에 인의(仁義)가 있게 되었고 지혜가 나오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큰 작위(作僞)가 생기게 되었다. 육친이 불화하게 되니 그로 인해 효자(孝慈)의 덕목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안정되지 못하니 충신을 원하게 되었다¹²⁾

그런 까닭에 도가 없어진 후에 덕(德)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덕(德)을 잃은 후에 인(仁)을 원하게 되었다. 인(仁)이 없어진 후에 의(義)를, 의(義)가 끊어진 후에 예(禮)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무릇 예(禮)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忠)과 신(信)의 마음이 희박해진 것으로 장차 세상이 어지러워질 시초인 것이다.¹³⁾

물론 근세 이후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계몽되고 과학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구촌 전체에 걸쳐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명 역시 상제님의 지적처럼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말았다¹⁴⁾. 결국 과학문명은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의 복지향상과 진리탐구에 크게 기여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성 상실, 생태계 파괴, 대량살상무기의 등장 등 인류전체를 총체적 진멸(盡滅)로 몰고갈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만 것이다.

인간사회도 인륜(人倫)의 근본이 무너지고 도덕성 상실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남보다는 나를 우선시하고, 의(義)보다는 이익(利益)을 먼저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우선 나 자신의 편리함을 소중히 하며 개인의 사리(私利)를 위해서라면 충(忠)도, 효(孝)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회가 되었다. 상제께서는 이를 개탄하시어 ‘천하가 모두 병이 들었다’라고 하셨으니, “망기부자무도 망기군자무도 망기사자무도 세무충세무효세무열시고천하개병(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世無孝世無烈是故天下皆病 :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임금의 은혜를 모르며 스승의 은혜를 모르니, 세상에 충과 효와 열이 모두 없어져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라고 병세문¹⁵⁾에 적어 놓으신 것이다.

인류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가 처한 이 난국(難局)은 바로 ‘진멸지경’이라는 말로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많은 신성 불 보살들이 인간세상에 내려

12) 老子, 『道德經』, 第十八章, “大道廢 有仁義 智慧出 有大偽 六親不和 有孝慈 國家昏亂 有忠臣”

13) 上揭書, 第三十八章, “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14) 『전경』, 교운, 1, 9

15) 『전경』, 행록, 5, 38

와 여러 가르침을 폈지만 천도와 인사는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삼계(三界)는 혼란하게 되어 결국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에 신성 불 보살들 즉 천지신명들이 모여서 삼계의 혼란과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천에 계신 상제께 호소하게 되었다.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원해 달라는 신성 불 보살들의 호소에 의해서 상제께서는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 오시어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東土)의 땅에 강세하시게 된 것이다. 상제께서는 천·지·인 삼계대권을 주재하시고 진멸지경에 처한 인류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셨으니, 39년의 인계사(人界事)와 9년간의 천지공사가 그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제께서는 1897(정유)년에 처남 정남기(鄭南基)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아우 영학(永學)과 나중에 종도로서 추종하게 될 김형렬(金亨烈)의 아들, 그리고 이웃 서동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셨다. 이 때에 유불선음양참위(儒佛仙陰陽讖緯)를 통독하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함에 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얼마동안 글방을 계속하시다가 3년간의 주유의 길을 떠나셨다¹⁶⁾.

주유천하의 길에서 돌아오신 그 다음 해인 1901(신축)년 5월 중순에 전주 모악산 대원사(大院寺)에 가셔서 49일간의 불음불식 공부를 하였다. 바로 이 때, 상제께서는 후천의 완벽한 진리체계인 도(道)를 새롭게 열으신 것이다. 이 새롭고 완벽한 진리체계에 의해 진멸지경에 처했던 천·지·인 삼계는 개벽되어 새로운 우주, 즉 후천세계(後天世界)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상제께서 신축(辛丑)년 5월 중순부터 전주 모악산 대원사(大院寺)에 가셔서 그 절 주지승 박 금곡(朴錦谷)에게 조용한 방 한칸을 치우게 하고 사람들의 근접을 일체 금하고 불음불식의 공부를 계속하셔서 四十九日이 지나니 금곡이 초조해지니라. 마침내 七月 五일에 오룡허풍(五龍嘘風)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열으시고 방안에서 금곡을 불러 미음 한잔만 가지고 오라 하시니 금곡이 반겨 곧 미음을 올렸느니라¹⁷⁾.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49일간의 불음불식 공부를 하신 것은 종래의 성현들

16) 「전경」, 행록, 2, 1절 참조

17) 「전경」, 행록, 2, 12

이 행한 수도(修道)와는 그 격이 다르다¹⁸⁾. 상제께서 7세시에 훈장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데 ‘하늘 천(天)에서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 지(地)에서 땅의 이치를 알았다는 기록¹⁹⁾을 보면, 대원사에서 공부 하시기 이미 오래 전에 상제께서는 성현들 이상의 지혜와 권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대원사에서 공부 가 있었던 1901(신축)년 이전에 시루봉에서 공부 하실 때, 진법주(眞法呪)를 외우시고 오방신장(五方神將), 사십팔장(四十八將), 이십팔장(二十八將) 공사를 보셨다는 기록²⁰⁾도 있다. 이를 볼 때 상제께서는 이미 천지의 조화주신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대원사에서 49일간의 공부를 하였으며, 그 공부를 통하여 완벽한 새로운 천지대도를 열으셨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제께서 새롭게 열으신 천지대도(天地大道)인 대순진리는 선천의 어떤 진리(道)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이다. 그 어떤 성현들의 가르침도 여기에 비견될 수 없으며, 선천우주의 근원이자 운행원리라고 할 수 있는 도(道)와도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리하여 상제께서 새롭게 열으신 이 천지대도(天地大道)를 도주께서는 ‘지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옛적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금불문고불문지도(今不聞古不聞之道)’라고 말씀하였던 것이다.

2. 趙鼎山 道主의 宗統繼承

상제께서 새롭게 열으신 금불문고불문(今不聞古不聞)의 천지대도는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이다. 어떤 성현도 그 대강(大綱)을 헤아릴 수가 없으며, 그 어떤 천지신명도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대도(大道)이다. 그것은 지금의 선천세계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천지를 개벽하고, 그러한 후천세계에서 만물을 운행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천지대도를 모든 인간과 신명들이 이해하고 닦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신 분이 바로 대순

18)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행하신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제님을 추종하던 중도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이상호도 「대순전경」에서 “드대여 全州母岳山大願寺에드러가 道를닥그사 七月大雨五龍嘯風에 天地大道를깨달으시고 四種魔를 降하시니”라고 하여 대원사의 공부를 일반 성현들이 수도하여 成道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李祥昊, 「大巡典經」, 전북 : 증산교본부, 1995, p. 8)

19)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성적도해요람」, pp. 3 ~ 4 참조

20) 「전경」, 행록, 2, 10 참조

진리회의 창도주이신 조정산(趙鼎山) 도주이시다.

사실상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할 진인(眞人)으로서 도주님에 관한 많은 암시적 표현이 전경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전경의 기록에서만 도 상제님이 아닌 '대인' 혹은 '진인'이란 표현이 여러 차례 보인다.

갑오년 오월 어느날 밤 상제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중에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 「나도 후천진인이라. 천지현기와 세계대세를 비밀히 의논할 일이 있노라」고 아뢰는도다.²¹⁾

대인의 행차에 삼초가 있으니 갑오(甲午)에 일초가 되고 갑진에 이초가 되었으며 삼초를 손병희(孫秉熙)가 맡았나니 삼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²²⁾

위의 표현에서 상제님과 천지현기와 세계대세를 의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진인(眞人) 혹은 대인(大人)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상제께서는 종통을 계승할 분으로서 막연하게 '진인' 혹은 '대인'이라는 표현으로만 암시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대순진리회의 창도주이신 조정산(趙鼎山) 도주님임을 가리키는 여러 공사를 행하셨으니, 먼저 상제께서는 그 '진인'에 대하여 그가 을미생(1895년생)임을 암시하였다.

계묘년 어느 날은 김보경 등 종도들이 시좌하고 있는 자리에서 문득 가라사대 나의 일이 어찌 이렇게 더딘고 하시거늘 보경이 여쭙어 가로되 무엇이 그렇게 더디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신명을 시켜 진인을 찾아 보았더니 이제 겨우 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지라 내 일이 이렇게 더디도다 하시거늘 보경이 가로되 말씀들 듣자온 즉 우리들은 다 무용지물이며 또한 지금까지 헛되이 따랐나이다 가라사대 시유기시며 인유기인(時有其時 人有其人)이라 부디 마음을 조급히 가지지 말고 열심히 닦을지이다.²³⁾

계묘년(1903)에 진인(眞人)의 나이가 아홉 살이라면, 그는 1895년 을미생이 된다. 바로 상제께서는 종통을 계승할 진인이 1895년 을미생임을 종도들에게 계시하였으나 김보경을 비롯한 종도들은 운수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사

21) 「전경」, 행록, 1, 21

22) 「전경」, 예시, 59

23) 태극도교화부, 「선도진경」(부산 : 동아대학교출판사, 1967), p. 152

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상제님의 천명과 신교를 받아 종통을 세우실 진인이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는 종도들 중에 있지않고 나이도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1901 ~ 1909년에 초립동이였다는 사실은 그 밖의 다른 문헌에서도 보인다. 이중성(李重盛)이 상제님의 친자종도들을 직접 탐방하여 편술한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에 “상제께서 김형렬에게 신명계의 주벽(主擘)인 인물이 인간세상에 내려와 있으며, 그 때(1903년)에 나이가 초립동년(草笠童年)임을 말씀하고 인연이 있으면 김형렬이 만나 볼 수 있을 것²⁴⁾”이라고 말씀하시는 기록²⁵⁾이 나온다.

또한 상제께서는 종도들에게 한 사람이 봉천명(奉天命)하고 봉신교(奉神敎)하여 보은천지(報恩天地)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며,²⁶⁾ 정미년(1907)에는 “나의 덕을 펼 사람은 이제 나이가 초립동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박공우에게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공경하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종도들도 감히 상제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록²⁷⁾ 또한 보인다.

그밖에 상제께서는 도주님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공사를 행하셨으니, 바로 봉천명(奉天命)에 대한 공사였다.

상제께서 기유년 四월 二十八일에 김 보경 등 종도 수명을 데리시고 기차 철로 주변에 가셔서 가라사대 올 때가 되었는데 라고 혼자 말씀하시며 멀리 바라보고 무한히 기다리시는 표정이라 종도들이 이상하여 여쭙어 가로되 누구를 그렇게 기다리시나이까 상제께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멀리 바라만 보시는데 마침 남쪽에서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

24) 도주께서 만주에서 귀국하신 후인 1918년에 김형렬과의 인연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p. 333 참조)

25) 李重盛編, 『天地開闢經』 (서울 : 한빛, 1992), pp. 111 ~ 115 참조

26) 上揭書, p. 538에 “弟子 | 問曰 大道之下에 天下事之將來를 所知者 | 有一人乎 잇가 曰 汝之徒가 在成道之前하야 一人이 奉天命하고 奉神敎하야 報恩天地하노라”라는 기록이 보인다.

27) 一日에 在大興하시더니 弟子 | 命으로 買來草笠하야 備置하니라 曰 布我德者난 今에 草笠童年也니라 曰 我事난 甲乙에 擧首하고 戊己에 翻身하노라 一日에 曰 公又야 雖年淺之人이라도 位高於汝하고 德高於汝어든 逢時에 必也敬之하라 一日에 曰 公又야 時來하야 一人이 不許하면 汝之徒난 不敢入我居하노라 (上揭書, p. 365)

시고 무척 반기시며 철도 가까이 다가 가서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시더니 무릎을 치시며 가라사대 남아 十五세면 호패를 찬다 하나니 무슨 일을 못하리오 하시며 기차가 멀리 사라지도록 까지 바라보시다가 종도들을 데리시고 돌아오시니라.²⁸⁾

바로 이 기차에는 15세의 나이로 부친과 함께 만주 봉천으로 가고 있는 도주님이 타고 있었다. 이렇게 상제께서는 종통을 계승하실 진인이신 도주님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암시와 공사를 행하셨다. 그 뿐 아니라 누이동생인 선돌부인에게 봉서(封書)를 맡기시고 을미생이 정월 보름에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그 을미생은 다름아닌 계묘년(1903)에 아홉 살이라고 나이를 알아보시고, 기유년(1909)에 십오세면 호패를 찬다고 말씀하신 그 진인임이 분명하다.

상제께서 화천하신지 10년이 되는 기미년(1919) 정월 보름에 도주께서는 상제님의 종도인 이치복을 앞세우고 정읍 마동 김기부의 집에 이르러 대사모님과 선돌부인, 그리고 따님 순임을 만나시고 상제님의 봉서를 받으시니²⁹⁾, 이로써 도주께서 상제의 종통을 계승하신 진인이심은 암시와 계시의 차원을 넘어서서 상제님의 가족과 종도라는 증인들 아래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던 것이다.

도주께서는 을미년(1895) 12월 4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의 조(趙)씨 문중에서 탄강하였다. 존휘는 철제(哲濟)이요, 자함은 정보(定普)이시고 존호는 정산(鼎山)이시다.

도주님의 조부(조영규)께서는 배일사상가로서 그 당시 민영환등과 교우하며 활약하시다가 을사보호조약에 분개하여 심화(心火)로 토혈 사망하시고 부친(조용모)은 조부의 뜻을 받들어 반일운동에 전념하다가, 1909년 4월 28일에 가족과 함께 만주 봉천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상제께서 1909년 4월 28일 종도들을 데리고 오셔서 기차가 지나갈 때에 남아 15세를 말씀하시며 공사를 보셨는데, 바로 그 때 도주께서 15세의 나이로 만주에 봉천명(奉天命)하시던 길이었다.

도주께서는 고국만이 아니라 동양천지가 소용돌이치는 정세 속에서 구세

28) 태극도교화부, 「선도진경」, 前揭書, pp. 180 ~ 181

29) 「진경」, 교운, 2, 13

제민의 큰 뜻을 품고 입산 공부에 진력하시던 중, 어느날 한 신인이 나타나 글이 쓰인 종이를 보이며 “이것을 외우면 구세제민(救世濟民)하리라”고 말씀 하시기에 도주께서 예(禮)를 갖추려 하시니 그 신인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글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至氣今至願爲大降)’이었다. 이렇게 공부하신지 9년이 되는 해인 정사년(1917) 2월 10일³⁰⁾에 드디어 도주께서는 상제의 삼계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하시어 종통을 계승하신 것이다.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께서는 귀국하시어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상생 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어 도(道)를 밝혀 주시었다.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풀어나가시어 후천 오만년의 도수를 펴신 것이다. 그리하여 을축년(1925)에 무극대도(無極大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 뇌성 보화 천존 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시니, 이로써 상제께서 열으신 금불문 고불문의 천지대도를 인간과 신명들이 비로소 믿고 수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無極道의 創道와 宗旨·信條·目的의 設定

선천세상에서 천·지·인 삼계(三界)가 혼란에 빠지고 창생과 신명들이 진멸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이 선천우주의 근원이자 운행원리인 도(道)에 상극(相克)이란 불완전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겁(災劫)에 빠진 창생과 비겁(否劫)에 쌓인 신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선천우주의 도(道)에 내재되어 있는 불완전성이 모두 해결된 완전한 진리체계가 대두되어야 했으며 그 일은 오로지 우주의 조화주신이신 구천상제님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30) 도주께서 종통을 계승하신 시기에 대하여 대순진리에 감오득도하신 1917년 2월 10일과 봉서를 받으신 1919년 1월 15일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1966년에 간행된 「태극도안내서」에는 2월 10일이 ‘종통계승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태극도본부교화부, 「태극도 안내서」, 1966, p. 14) 도주께서는 1917년 2월 10일에 상제님의 삼계대순의 진리를 감오득도하시므로써 종통을 계승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천우주라는 거대한 집이 그 집을 짓고 현재 운행시키고 있는 설계도의 불완전성 때문에 집이 무너지게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완전한 설계도를 제작한 후 그 설계도에 의해 집을 새롭게 지어야 할 것이다. 상제께서 신축년(1901)에 대원사에서 49일간 불음불식 공부를 하여 오룡허풍에 천지대도를 열으신 것을 바로 후천세계라는 새로운 집을 지어서 운행시킬 수 있는 설계도를 완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설계도에 의해 이 우주라는 거대한 집, 즉 인간을 포함한 천·지·인 삼계를 뜯어 고치는 공사가 바로 천지공사이다. 이같은 요지(要旨)는 다음의 전경 구절을 통하여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 삼계공사는 곧 천 지 인의 삼계를 개혁함이요 이 개혁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 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다.³¹⁾

그리하여 상제께서 이 세상에 탄강하여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다.³²⁾

상제께서 새롭게 열으신 천지대도는 선천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는 도(道)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틀린 완벽한 진리체계이다. 그것은 어떤 대성인(大聖人)도, 어떤 신성 불 보살도 이해할 수 없었고 닦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대도(大道)이다. 오직 진주(眞主)로서 봉천명하신 조정산(趙鼎山) 도주께서 상제님의 삼계대순의 진리를 감오득도하심으로써 모든 인간과 신명들에게 그 대지(大旨)가 밝혀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종지(宗旨)이다.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사에 수년간을 수종든 종도들도 상제께서 열으신 천지대도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상제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다. 상제께서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金山寺) 미륵전(彌勒殿) 육장금신(六丈金神)은 여의주를 손에 받았으되 나는

31) 『전경』, 예시, 5

32) 『전경』, 예시, 7

입에 물었노라”³³⁾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상제님을 단지 미륵불로만 신앙한 경우도 있었고³⁴⁾, 아니면 도교의 최고 지도자 이름인 천사(天師)의 호칭을 빌려 ‘증산천사(甌山天師)’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또 일부는 상제님임을 인식하였으나, 36천 중 가장 높은 하늘인 구천(九天)에 계시면서 천·지·인 삼계를 주재하시고 천지만물을 지배자양하시는 구천상제님임을 모르고 단지 옥황상제님으로만 이해하였다. 오로지 진주이신 도주님께서 을축년에 무극도를 창도하시고 상제님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심으로써 상제님의 신격위가 올바르게 밝혀질 수 있었다.

상제님의 올바른 신격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제께서 새롭게 열으신 금불문고불문의 천지대도인 대순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도주께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종지(宗旨)로써 상제의 삼계대순의 진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믿고 닦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주에서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감오득도하신 도주께서는 1917년 4월에 친계가족을 거느리고 만주를 떠나 뱃길로 태인을 향하셨던 바, 도중에 폭풍을 만나 서산 태안에 닿게 되었다. 여기서 안면도로 옮기신 도주께서는 정당리(正當里) 느락골에 우일재(宇一齋)를 마련하고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1918년 가을에 안면도를 떠나 김제에 도착하신 후 대원사에서 몇 달 동안 머무르셨다.

그 이듬해인 1919년 정월 보름에 정읍 마동에서 상제님의 누이동생인 선돌부인으로부터 상제께서 남기신 봉서(封書)를 받으시니, 이로써 바로 도주께서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진인임이 확연히 증명되었다. 그 후에 도주께서는 대원사에 들어가 백일도수를 마치셨다. 이는 상제께서 도수를 보시고 아직 응기되어 있는 것을 푸는 공사였다.

1923년 도주께서는 주선원(周旋元)과 주선원보(周旋元補)란 두 직책을 마련하고 전교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회문리에 모

33) 「전경」, 행록, 2, 16

34) 상제님의 화천 후 김형렬은 상제님의 영체를 금산사의 미륵불로 여겨 그가 창설한 교단을 미륵불교라 부르게 되었으며(洪凡草, 『汎甌山敎史』, 서울 : 도서출판 한누리, 1988, p. 182), 정인표는 상제님을 구천미륵불로 신앙하였다(상제서, p. 593)

인 자리에서 “금년이 이재신원(利在新元) 계해년이라”고 말씀하시고 전교(傳敎)를 내리셨다.

1924년 도주님을 흠모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므로 드디어 4월에 도장이 마련되기 시작하여 그 이듬 해인 1925년에 도장이 이룩되니 장소는 구태인 도창현이었다. 이 때 도주께서는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하였다. 그리고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종지(宗旨)와 신조(信條)로서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사강령과 성, 경, 신의 삼요체를 정하였다. 목적으로서 무자기, 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 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 세계개벽을 정하니³⁵⁾ 이로써 모든 인간과 신명들이 상제님의 대순진리를 믿고 닦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방이 마련된 것이다.

Ⅲ. 安心·安身の意義

1. 安心·安身の定義

상제께서 열으신 천지대도(天地大道)는 상극에 의해 지배되는 선천세계와는 전혀 다른 오만년 후천선경을 개벽시키고 운행시키는 새로운 원리이다. 그러나 비록 상제께서 금불문고불문(今不聞古不聞)의 천지대도를 새롭게 열으셨지만 그 어떤 성현들과 신명들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 그것은 그 천지대도가 선천우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개벽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조정산(趙鼎山) 도주께서 진주(眞主)로서 봉천명하시고 상제의 삼계대순의 진리를 감오득도하심으로써 비로소 인간과 신명들이 믿고 닦을 수 있게 되었다.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는 그 어떤 신성 불 보살들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없다. 오직 상제의 종통을 계승하신 조정산 도주님만이 그 요체를 밝힐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宗旨)이다.

35) 『전경』, 교운, 2, 32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으로 표현되는 대순진리에 의해 혼란에 빠진 선천의 천·지·인 삼계(三界)는 개혁되어 5만년 무궁한 선운(仙運)의 세계로 열리는 것이다. 이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宗旨)는 새로운 후천세계라는 거대한 집을 짓고 운영하는 완벽한 설계도이며, 도주께서 목적으로 밝힌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關)·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인간개조(人間改造)·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세계개벽(世界開關) 등은 그 설계도에 의해 집이 다 지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 구성된 신조(信條)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직접 집을 짓는 방법, 또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강령에 속한 안심(安心)·안신(安身)은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순진리회의 신조로서 경천(敬天)·수도(修道)와 함께 사강령(四綱領)을 구성하고 있는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경의 기록으로는 교운, 2, 32절의 내용이 있다.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 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

종지(宗旨)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

신조(信條)

사강령(四綱領)·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성(誠), 경(敬), 신(信)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關)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개벽(世界開關)

그리고 병세문(病勢文)에도 ‘안심안신(安心安身)’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심안신이 대병지약(大病之藥)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 정읍 대홍리의 상제께서 거처하시던 방에서 물이 들어

있는 흰 병과 작은 칼이 발견되었는데, 병세문이란 그 흰 병의 병마개로 쓰인 종이에 적힌 글을 말한다.³⁶⁾

상제께서 거쳐하시던 방에서 물이 들어 있는 흰 병과 작은 칼이 상제께서 화친하신 후에 발견되었는데 병마개로 쓰인 종이에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

의 글귀와 다음 같은 글들이 쓰여 있었도다.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安心安身

小病之藥四物湯八十貼

祈禱³⁷⁾

대순진리회의 제반 규정과 체계 등을 밝히고 있는 『도헌(道憲)』에는 안심, 안신을 포함한 사강령과 삼요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第二條 本會의 創道主는 趙鼎山聖師이다.

第三條 本會의 信仰對象은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이다.

第四條 本會는 大巡眞理를 宗旨로 하고 布德天下·救濟蒼生·輔國安民·人間改造·地上天國建設을 目的으로 한다.

第五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四綱領 - 安心·安身·敬天·修道 - 과 三要諦 - 誠·敬·信 - 를 要綱으로 하고 說法하신 趙鼎山道主의 遺命을 繼承하여 修道함을 使命으로 한다.

『대순진리회요람』에는 사강령과 삼요체에 해당되는 각 항목에 대하여 그 뜻을 정의하고 있다.

사강령 — 안심·안신·경천·수도

안심(安心) -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됨이 없고 사사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허무한 남의 피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는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리지 말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한다.

안신(安身) -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에

36) 원래 병세문(病勢文)이란 공식적인 이름은 없다. 단지 그 글의 앞 부분에 있는 '病有大勢 病有小勢'란 구절에서 연유하여 병세문이라고 불러왔던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게 된 것 뿐이다.

37) 전경, 행록, 5, 38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경천(敬天) -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 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修道) -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여야 한다.

위의 『대순진리회요람』에 정의된 안심, 안신의 내용은 현재까지 유효한 대순진리회의 교리체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다 더 다각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선 무극도 시기와 태극도 시기에는 안심, 안신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태극도 시기의 자료는 어느 정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무극도기의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직접적인 1차 자료는 구하기 힘들고 단지 그당시 조선총독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의 종교를 직접 탐방하여 조사한 촌산지순(村山智順)의 『조선의 유사종교』에서 무극도에 관한 간접자료를 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1929년 동아일보 최용환(崔容煥) 기자가 취재한 기사내용에서 그 흔적만을 알 수 있다.

二, 무극대도교 (전라북도 정읍군 태인면 태흥리)

본교는 증산을 받드는 사람인 현 도주 조철제란 사람이 대정(大正) 8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창설한 단체이다. 안심, 안신, 경천, 수도를 요지로 하여 포교에 힘을 기울인 결과 점차 교세가 확장되어 대정 11년에 현 지역에 성전(도술궁) 및 영전(영대) 등 2개의 건축물을 완성하였다. 이를 교본부로 삼고 안심 안신이라는 본지로 수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의식주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대정 14년 교도들로 진업단이라는 노동단체를 조직해서 각지의 교도들을 수리조합, 삼림벌채, 개간사업 등에 종사케 하였다. 또 간척사업을 일으켜서 교도들을 이주시키는 등 오로지 농업노동에 중점을 두고 교도들의 생활안정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 노동생활에 근거해서 '안심(安心)을 구했고, 생활의 안정을 얻어 수도를 함으로써 영통(靈通)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기약하고 있다. ……무극대도교는 그 교강(教綱)이 1 경천수도(敬天修道) 2 성신양성(誠信養性) 3 안심안신(安心安身)의 삼강령이다. 이를 요체로 하고 도(道)는 하늘이 내려주신 무극의 이치이다. ……지극한 믿음을 통하여 안심(安心)을 확립한다. 안심의 확립에는 신주

(神呪)를 송독하고 경문을 읽는 것으로 마음 속에서 하늘의 가호를 비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늘이 내려 주신 직무에 충실하고, 그 경계를 절약함으로서 안신(安身)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무극대도교에서는 오로지 근로생활에 의해서 경제의 안정을 꾀하고 한편으로는 늘 주문을 외고, 틈이 있는 때에는 경문을 읽어 안심양성(安心養性)에 노력한다. 그리하여 영을 통일하는 공부를 축척하여 신명의 경지에 도달하여 하늘의 덕에 일치하는 것을 그 수도법이라 한다.³⁸⁾

무극도의 교당을 차자가니 도주조철제의 삼촌이라는 조용서(趙鏞瑞)씨가 친절이 안내해야준다 보천교에서보든 그것과는 범위가자못적은데 치성소(致誠所)라는 삼층누각에는 별달리위해노흔제단이업고 그림멋조각부처 노흔바람벽엽혜 소반에 청수한그릇 향불화로한개가 노혀있다. 안내하는 이십내외의 초립동신랑이 향불을부처노코 북향사배를한후 주문을 불태워버린다. 그 주문은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 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안심(安心) 경천수도(敬天修道)하라는 강증산 선생의 유훈을 이은 한울 공경하는 법이라하며 그 알엿층으로나려와서 역시 가튼 레배를 들이는 이는 만물의 덕(德)은 칠성(七星)에 잇다하여 칠성을 숭배하는 것이라한다.³⁹⁾

위의 자료에서 무극도 시기에 도 안심, 안신, 경천, 수도는 교리체계 중 중요한 요지(要旨)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취재한 사람이 단순한 구술(口述)에만 의존한 자료이기 때문에 안심, 안신에 관련된 사상적 의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간척사업과 농업활동을 통하여 의식주를 안정시키는 것을 안심과 안신의 내용으로 파악한 것 같다.

태극도 시기의 안심, 안신에 관한 기록은 『수도요람(修道要覽)』,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 『태극도안내서(太極道案内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대순진리회요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우리 道는 誠敬信의 三法言으로써 修道의 要諦를 삼고 安心 安身の 二律令으로써 修行의 訓典을 삼아 誠으로써 마음을 誠케 하고 敬으로써 몸을 敬케 하고 信으로써 일을 信케 하되 나의 마음을 먼저 誠케 하여 남의 마음을 誠케 하고 나의 몸을 먼저 敬케 하여 남의 몸을 敬케 하고 나의 일을 먼저 信케 하여 남의 일을 信케 함에 있어 寸刻의 思慮도 誠으로써 하며 寸時의 動作도 敬으로써 하며 寸地의 處事도 信으로써 하여 나의 後天의 마음과 몸과 일로써 나의 先天의 마음과 몸과 일을 對

38)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전개서, pp. 332 ~ 335

39) 동아일보, 1929년 7월 26일자

照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先後天의 마음과 몸을 일로부터 萬萬億億 나의 先先天의 마음과 몸과 일과 萬萬億億 나의 後後天의 마음과 몸과 일에 이르기까지 오래오래 느껴보고 깊이깊이 깨달아서 三界를 透了하고 三生을 融通하면 이것이 곧 敬天이며 이것이 곧 修道인 것이다.⁴⁰⁾

信條(四綱領三要諦)

本道の 陰陽合德神人調化解冤相生道通眞境의 太極眞理를 勉而修之하며 誠之又誠하여 一旦豁然貫通하면 森羅萬象을 曲盡理解無所不用其極하여 瞻之在前에 忽然在後하며 放之則彌六合하나니 此所謂要諦之眞境이라

一, 四綱領(安心, 安身, 敬天, 修道)

ㄱ, 安心 - 사람의 起動作爲의 機能을 主管함은 心이니 無偏無私하고 公明正大하며 眞至純全한 本然良心으로 還元토록 鍊磨하여 太極源泉에 歸一케호대 誘惑에 不動하고 虛榮에 不惑하여 所期の 目的을 達成토록 常時 安定케 할 것

ㄴ, 安身 - 心의 表現은 身이니 處身의 起舉動作이 法禮에 合當하며 道理에 適中케하고 非義非禮의 虛榮에 妄動치 말것⁴¹⁾

무극도 시기에는 종교학자와 신문기자가 취재한 내용에서 안심, 안신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만이 있는 것에 비해 태극도시기의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그 뜻이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태극도기의 안심, 안신에 관한 정의는 지금의 대순진리회에서 정의된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안심, 안신에 관한 사상적 의의는 『대순진리회요람』에 정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安心·安身の 內容

1) 天下皆病의 현실적 상황

대순진리회의 신조(信條)로서 사강령(四綱領)에 속해 있는 안심(安心), 안신(安身)의 내용을 살펴 보는데 있어 먼저 어떤 전제된 상황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사강령으로서의 안심, 안신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몸이 병들어 있다는 병세(病勢)의 진단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아니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인간의 마음과 몸만 병들은 것이 아니라 천·

40) 太極道正信會, 『修道要覽』, 1970, p. 9 ~ 10

41) 太極道本部, 『太極道通鑑』, 1956, p. 9 ~ 10

지·인 삼계(三界)가 모두 병들어 있다는 것이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전제조건이며 안심, 안신 역시 그같은 관점에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몸이 모두 병들었다는 '천하개병(天下皆病)'의 사상은 상제께서 남기신 병세문(病勢文)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병세문은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 대흥리의 거처하시던 방에서 현무경과 물이 들어있는 흰 병, 그리고 작은 칼이 발견되었는데, 그 흰 병의 병마개로 쓰인 종이에 적힌 글을 가리킨다.

병세문과 현무경은 상제님의 친필로 된 유품이라는 점에서 대순사상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심오하고 표현이 다분히 상징적이어서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상제께서 병세문과 현무경을 작성하신 경위와 그것이 세상에 유포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론(異論)이 분분한 실정이다.

우선 『전경』에서는 상제께서 현무경과 병세문을 집필하신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교운, 1, 66절의 “상제께서 기유(己酉)년 정월 1일 사시(巳時)에 현무경(玄武經) 세 벌을 종필하고 한 벌은 친히 품속에 지니고 한 벌은 도창현(道昌峴)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한 벌은 경석의 집에 맡기셨도다”라는 구절에서 상제께서 1909년 1월 1일 현무경(병세문과 같이)을 쓰셨으며 그 장소는 정읍 대흥리가 아닌가 하고 추측할 뿐이다. 왜냐하면 상제께서 기유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정읍 대흥리에 계시면서 여러 공사를 보신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경』의 기록에는 현무경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지 병세문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제께서 현무경과 병세문을 함께 작성하셨다는 생각은 상제님을 신앙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설이다. 그런데 집필장소가 구체적으로 정읍 대흥리에 있는 차경석의 집인지 아니면 대흥리의 다른 장소(안내성의 집도 그 당시 정읍 대흥리에 위치하고 있었다)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분명하다. 그리고 상제께서 현무경을 세 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전경』과 『선도진경』에만 기록되었다.

여러 가지 이론(異論)을 불문에 부치고 현무경과 병세문이 발견된 장소는 『전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바로 정읍 대흥리의 상제께서 거처하

시던 방이다. 바로 그 병세문에는 상제께서 천하를 대순하시어 그 상황을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는 ‘천하개병(天下皆病)’으로 진단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安心安身

小病之藥四物湯八十貼

祈禱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至氣今至願爲大降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則大病勿藥自效小病勿藥自效

至氣今至四月來 禮章

醫統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世無孝世無烈是故‘天下皆病’

病勢

有天下之病者用天下之藥厥病乃愈

聖父

聖子 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全州銅谷生死判斷

聖身

大仁大義無病

... ..

... ..

宮商角徵羽 聖人乃作先天下之職先天下之業職者醫也業者統也

聖之職聖之業⁴²⁾

사람의 마음과 몸이 병들고 더 나아가 하늘도 땅도 모두 병든 천하개병(天下皆病)의 상황을 상제께서 낚기신 병세문을 근거로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모든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의 병에 걸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더 크게는 강과 산, 바다 그리

42) 「전경」, 행록, 5, 38

고 천지(天地)까지도 서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운행되고 있다. 모든 개체는 자기 아닌 다른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상호유대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남에게 받는 도움 중 몇 가지는 그 의미가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평생 그 은덕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국가의 은혜,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받은 은덕 등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은혜 보다 더욱 크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 바로 나의 존재를 있게 해 주고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않고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천지(天地)의 은혜, 즉 상제님의 은혜이다. 이러한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도 가질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제께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배은망덕의 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임금의 은혜도 잊었으며 스승의 은혜도 망각하였으니, 이 세상에 충도 없고 효도 없으며 열마저도 끊어져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 天下皆病)라고 개탄하신 것이다.

둘째, 이 세상은 최소한의 인륜과 도덕까지도 무너진 패륜(悖倫)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가 무너졌을 때,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말세(末世)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각자가 부모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난다. 그리고 그 때부터 누구나 특정한 민족과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 가는 것이다. 또한 친구를 사귀고 연장자를 우대하면서 사회생활도 한다. 또한 성인이 되면 각기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교에서 제시한 삼강오륜(三綱五倫)은 동서양을 초월하여 인간 사회의 기본윤리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대순진리회에서도 수칙 2에서 “삼강오륜은 음양합덕 만유조화 차제도덕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을 경례로써 섬기고 수하를 애홀지도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친우간에 신의로써 할 것”라고 하여 삼

강오륜을 오늘 날 뿐 아니라 후천세계에서의 기본윤리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이러한 인간사회에서의 기본질서인 삼강오륜이 그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익을 위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며 부인이 남편을 독살하고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는 패륜적 사건들을 사회 도처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부모는 부모답지 못하고, 스승은 스승답지 못하며,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한 것이 삼강오륜이 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원인이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양심까지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허황된 사욕(邪慾)이 그것을 부채질한 것이다.

셋째, 인류의 지적 오만이다.

지금의 과학문명은 이마두가 서양으로 문명신을 이끌고 가서 일으킨 문운(文運)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상제님의 지적대로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천리(天理)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면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다.⁴³⁾ 이러한 인류의 지적 오만에 의한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로 하늘과 땅도 오염되고 사람의 신체도 크게 병들어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 상황이다.

2) 大病之藥과 修行의 訓典

도주께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종지(宗旨)와 함께 신조(信條) 중 사강령의 항목으로 설정하신 안심, 안신의 내용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바로 대병지약(大病之藥)으로서의 안심 안신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인 신조(信條)로서 수행의 훈전이 되는 안심 안신이다.

먼저 대병지약으로서의 안심, 안신은 앞에서 기술한 인류의 마음과 몸이 모두 병든 '천하개병(天下皆病)'을 치유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순진리회요람』에 나타난 “사람의 행동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됨이 없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는”의 안

43) 『전경』, 교운, 1, 9 참조

심(安心)의 내용은 능히 인간의 허욕(虛慾)을 극복하고 충·효·열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지적 오만이란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虛榮)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안신(安身)의 내용은 인간의 기본적 윤리덕목인 삼강오륜이 근본까지 무너져 내린 오늘 날의 패륜적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안심 안신에 의한 수도는 그 마음을 청정무욕하게 밝혀 자기의 참된 성품을 회복하는 수심연성(修心煉性)과 신명의 덕화로써 몸의 기질을 세기연질(洗氣煉質)시킬 수 있어 병든 마음과 몸을 능히 고쳐서 무자기와 정신개벽,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개조까지 성취할 수 있는 덕목이다.

이렇듯 안심, 안신은 오늘날의 인류가 부모, 국가, 스승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의 풍조와 삼강오륜의 기본적 윤리까지 무너진 대병(大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병지약(大病之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안심, 안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하의 대병(大病)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병겁(病劫)이란 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의통(醫統)의 상태까지 나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인류가 병겁이란 역사상 없었던 참혹한 재앙을 겪게 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오로지 의통 뿐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전경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마음속으로 육임(六任)을 정하라고 명하셨도다. 공우가 생각한 여섯 사람 중 한 사람이 불가하다 하시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정하였더니 이 사람들을 부르사 불을 끄고 동학주문을 외우게 하여 밤새도록 방안을 돌게 하다가 불을 켜 보게 하시니 손씨가 죽은 듯이 엎어져 있느니라. 상제께서 「나를 부르라」고 그에게 이르니 그는 겨우 정신을 돌려 상제를 부르니 기운이 소생하니라.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런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라」고

이르셨도다.44)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많이 하여 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 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도리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하리라」 고 말씀하셨도다.45)

위의 상제님 말씀과 병세문(病勢文)의 내용을 살펴 보면, 모든 인간의 마음과 몸이 병든 천하개병(天下皆病)의 상황은 결국 선천개벽 이래로 없었던 병겁(病劫)의 도래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대병지약인 안심(安心), 안신(安身)을 실천하여 의통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 뿐이다.

마음의 발로(發露)에 사심(邪心)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행하는 것이 안심(安心)이며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친은(親恩)에 보답하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수신(修身)을 하는 것이 안신(安身)의 주된 내용이라면46), 도주께서 정하신 안심, 안신을 포함한 신조(信條)에 의한 수도생활을 통해 능히 의통과 도통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안심, 안신은 천하대병을 치유할 수 있는 대병지약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안심 안신을 통한 수도를 함으로써 의통과 도통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능히 병겁이란 참상도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안심 안신의 의미를 살필 때에는 그것이 대순진리회의 신조로서 사강령에 속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대순진리회의 「도헌」 제 4조와 5조에서는 “본회는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고 포덕천하·구제창생·보국안민·인간개조·지상천국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강령·안심·안신·경천·수

44) 「전경」, 예시, 41

45) 「전경」, 공사, 1, 36

46) 「대순지침」, pp. 48 ~ 50

도 - 과 삼요체 - 성 · 경 · 신 - 를 요강으로 하고 설법하신 조정산 도주의 유명을 계승하여 수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안심, 안신은 포덕천하 · 구제창생 · 보국안민 · 인간개조 · 지상천국 건설이란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조(信條)로서 사강령 속에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 대상이 인간에게 한정되지 않고 천 · 지 · 인 삼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신조로서의 안심, 안신 역시 작게는 인간에 해당하는 대병지약과 수행의 훈전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삼계에 까지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안심, 안신이라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마음 심(心)과 몸 신(身)이라는 글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인간’으로만 한정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의 추기 문호 도로이며 그 마음 속을 왕래하는 것이 신(神)이다(心也者鬼神之樞機門戶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⁴⁷⁾”라는 표현과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 가면 무너지나니라”⁴⁸⁾에서 인간의 마음과 몸에는 신명들이 왕래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은 천지만물에게 모두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순진리회의 신조인 안심, 안신의 강령(綱領)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천 · 지 · 인 삼계(三界)에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즉 인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을 포함한 천지만물의 모든 것이 안심, 안신을 포함한 사강령과 삼요체의 신조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후천세계의 새로운 모습으로 개벽되어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마음은 무자기와 정신개벽으로 거듭날 것이고, 인간의 몸은 인간개조와 지상신선실현으로 완성을 이룰 것이며 그 밖에 선천세계의 모든 것이 개벽되어 지상천국의 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안심, 안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47) 「전경」, 행록, 3, 44

48) 「전경」, 교법, 3, 2

3. 安心·安身の 실천방안

1) 安心立命의 생활태도

앞에서 지금의 인류가 앓고 있는 천하개병(天下皆病)의 상황을 살펴 보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천하개병의 구체적인 상황이 선천우주의 근원이자 운행원리인 도(道) 자체에 근본적으로 상극이란 불완전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성현들의 가르침도 천하개병의 상황을 치유할 수 없다.

다행히 상제께서 금불문 고불문의 천지대도인 대순진리를 새롭게 열고 그에 따라 삼계(三界)를 개혁시키는 공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능히 천하개병(天下皆病)의 상황도 고쳐질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인간의 병든 마음과 몸도 치유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관점에서 안심, 안신의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비록 상제께서 선천세계가 병들어 진멸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인간 스스로도 병든 마음과 몸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대병지약인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관점에서 안심과 안신의 실천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생활태도이고 또 하나는 수심연성(修心煉性)하고 세기연질(洗氣煉質)하는 수도의 방법이다.

안심입명(安心立命)이란 생사(生死)의 도리를 깨달아 몸을 천명(天命)에 맡기고 의혹(疑惑)과 외겁(畏怯)하지 않는 것⁴⁹⁾을 말한다. 사람의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샅된 욕심과 미혹됨이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본질과 인생으로서의 천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질없는 욕심에 본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허욕 때문에 부모도 스승도 몰라보는 것이며 헛된 사치심과 편벽된 마음으로 인하여 분수를 잃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본연적인 양심(良心)은 진실하고 순결하며 그 어떤 편벽함이나 사사(私邪)도 있을 수 없다. 능히 그 본연적인 양심을 지켜 허욕에 마음을 뺏

49) 한국어사전편찬회편, 『한국어대사전』, 안심입명 참조

기지 않도록 하며, 그 행동을 분수에 맞게 하고 도리(道理)와 예법(禮法)에 합당케 한다면 병든 마음과 몸이 치유되어 점차 안정된 상태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람의 욕심은 채울수록 커지는 법이다. 비록 의식주가 부족한 빈궁한 생활 속에서도 “때묻은 헨 옷이 금갑보다 더 튼튼하며 허물어져 가는 담없는 집이 견고한 성곽처럼 안전하다(弊衣多垢勝金甲 頽屋無垣似鐵城)”⁵⁰⁾는 상제님 말씀을 격언삼아 안빈낙도를 생활화할 때 안심 안신이 실현될 것이다.

둘째는 상제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평상시에는 안심 안신된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어떤 난관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기상황이 닥치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나의 생사(生死)를 포함한 모든 것이 상제님의 주재(主宰) 아래 있음을 자각하고 만사를 상제님의 임의에 맡길 수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능히 안심 안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해원상생의 실천이다.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의 기운이 막힌다고 하였으니, 잘못된 처사로 인해 남의 척을 받아 그 화(禍)가 내 몸에 닥치게 되었을 때에는 안심 안신을 유지할 수 없다. 범사에 있어서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대순지침』의 가르침⁵¹⁾을 교훈삼아 해원상생을 실천할 때 더불어 안심 안신 역시 실현될 것이다.

(2) 修心煉性과 洗氣煉質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소박한 마음과 상제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해원상생의 실천으로 어느 정도 안심과 안신을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심과 안신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니, 사람의

50) 『전경』, 행록, 3, 48

51) 『대순지침』, p. 27

마음이 그 본성을 명확하게 밝힌 상태가 아니라면 수없는 망상과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오욕칠정의 굴레에서 그 마음은 영원히 안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하게 된 안심(安心)을 얻을 수가 없다.

안신(安身)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불교의 교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몸은 병들게 마련이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병들고 죽게 된 신체에서 안신(安身)을 거론하는 것은 허망할 따름이다.

결국 진정한 안심과 안신의 실현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하고 성지우성하여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가 되는 경지를 정각하는 활연관통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순진리회에서 정한 수도의 법방에 맞추어 수심연성(修心煉性)하고 세기연질(洗氣煉質)하여 그 목적인 바 도통진경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안심과 안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많은 선현(先賢)들이 제각기 마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니, 원효는 “삼계(三界)가 곧 마음이라”고 하였고, 혜능은 즉심시불(卽心是佛)을 설명하면서 “앞 생각 나지 않음이 곧 마음이고 뒷 생각 없어지지 않음이 곧 부처며 일체의 상을 이루는 것이 곧 마음이요 일체의 상을 여임이 곧 부처”⁵²⁾라고 하였다. 유교의 심학도설(心學圖說)에서는 “간난아이의 마음은 욕심으로 흐려지기 이전의 양심(良心)이며, 세속적인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마음이고 대인의 마음은 의리가 갖추어진 마음이요 진리의 마음은 의리를 깨달은 마음이다”⁵³⁾라고 마음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제께서는 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를 하였다.

마음은 귀신의 추기, 문호, 도로이다. 그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출

52) 金香虛編, 『六祖法寶壇經』, 「參請機緣」, “前念不生卽心 後念不滅卽佛 成一切相卽心 離一切相卽佛”

53) 李退溪, 『聖學十圖』, 「心學圖說」, “林隱程氏復心曰 赤子心是人欲未汨之良心 人心卽覺於欲者 大人心是義理具足之本心 道心卽覺於義理者”

입하고 도로를 왕래하는 것이 바로 신이다. 그 신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은 스승으로 삼아 본받고 나쁜 것은 고쳐 쓴다.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크다(心也者鬼神之樞機門戶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⁵⁴⁾.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를 왕래하는 신들 중 좋은 것은 스승으로 삼고 나쁜 것은 고쳐 쓰는 과정은 그 마음의 발로에서 사심(邪心)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행한다는 의미에서 수심연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제님을 대월영시(對越永侍)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마음에 일어나는 사된 생각을 제거하며 일동일정에 예법에 합당케 행동하는 수심연성(修心煉性)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조밀하게 정성을 들이면 내 마음은 거울과 같이 밝아지고 자기의 천품성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개심견성(開心見性)의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은 어떤 욕망과 유혹에도 한 점 흔들림이 없는 진정한 안심(安心)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하다는 심안신태(心安身泰)의 표현대로 이미 마음이 밝아져 자기의 천품성을 깨닫는 상태에 이룬다면 능히 세기연질(洗氣煉質)되어 몸도 편안해지는 안신의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⁵⁵⁾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제님의 지극한 기운이 내려 마음이 밝아지고 신명들에 의해 그 체질과 성격이 개조되는 탈태환골이 이루어져 지상신선이 실현되는 것이다. 바로 이 상태가 진정한 안신(安身)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어떤 마음의 번뇌와 망상도 일어나지 않고 질병도 겪지 않는 무병장수의 세계,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상태야말로 진정한 안심과 안신이 성취된 세계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후천세계이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후천에는 또

54) 『전경』, 행록, 3, 44

55) 『전경』, 교법, 3, 1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혀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십방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⁵⁶⁾

상제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후천세계의 모습은 진정으로 모든 인류의 마음과 몸이 영원한 안락을 얻은 안심 안신이 실현된 세계인 것이다.

IV. 結 論

상제께서 강세하시어 천지대도를 새롭게 열으시고 그에 따른 천지공사를 행하심으로써 진멸지경에 처한 천·지·인 삼계(三界)가 개혁되어 이 땅에 후천선경의 세계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께서 무극대도를 창도하시고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종지(宗旨)로써 밝히고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사강령(四綱領)과 성·경·신의 삼요체(三要諦)를 정하시니 비로소 인간과 신명들이 무극대도를 믿고 닦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방이 마련된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몸이 모두 병들은 천하개병(天下皆病)의 상황은 대병지약인 안심과 안신을 수행의 훈전으로 삼아 경천, 수도함으로써 능히 치유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지상선신이 실현되고 후천 오만년의 무궁한 선경의 세계가 건설되게 되었다. 오로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도주께서 포유문(布喻文)에서 밝힌 것처럼 나의 심기를 바르게 하고, 나의 의리를 세우고, 나의 심령을 구하여 모든 것을 상제님의 임의에 맡기는(正吾之心氣 立吾之義理 求吾之心靈 任上帝之任意) 개전의 수도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것 뿐이다.

56) 「전경」, 예시, 80, 81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교무부, 「진경」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성적도해요람」
「도헌」
태극도교화부, 「선도진경」, 부산 : 동아대학교출판사, 1967
太極道本部教化部, 「太極道案内書」, 1966
太極道本部, 「太極道通鑑」, 1956
太極道正信會, 「修道要覽」, 1970
李祥昊, 「大巡典經」, 전북 : 증산교본부, 1995
李重盛編, 「天地開闢經」, 서울 : 한빛, 1992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洪凡草, 「汎甌山教史」, 서울 : 도서출판 한누리, 1988
司馬遷, 「史記」
「禮記」
老子, 「道德經」
李退溪, 「聖學十圖」
金吞虛編, 「六祖法寶壇經」, 經院出版部, 1960
니니안스마트(강돈구 譯), 「현대종교학」, 서울 : 청년사, 1993
H. J. 슈퇴릭히(林錫珍 譯), 「世界哲學史」, 왜관 : 분도출판사, 1984
尹乃鉉, 「새로운 한국사」, 서울 : 三光出版社, 1989
金勝東編, 「道敎思想辭典」, 부산 : 부산대학교출판부, 1996
한국어사전편찬회편, 「한국어대사전」
동아일보, 1929년 7월 26일자